



◇23일 오전 서울 진입에 성공한 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고개를 넘는다.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를 넘는다. 수경스님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링거 주사를 맞으며 '눈물의 고개'를 넘는다. 부처님이 6년 고행 시 전정각산에 올랐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렇다면 수자타의 우유죽은 무엇일까?

삼보일배 57일째인 23일 오전. 삼보일배 도종 탈진해 응급실로 실려갔던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들의 삼보일배가 다시 시작됐다. 다른 세 명의 성직자들이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할 때, 스님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도형 불자가 미는 휠체어에서 합장 반배로써 예를 다했다. 같이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주는 시간 문규현 신부의 이마로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200여명의 삼보일배단 뒤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응급차가 뒤따랐다. 스님이 담당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불교 과천교당 어린이 30여명이 삼보일배단에게 '힘내세요' '사랑해요'라고 외치자 살짝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40분 경, 고개 정상에 도착했다. 삼보일배 57일만에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는 말을 외치자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말없이 겨안으며 눈물

을 흘렸다. 김영일 교무와 이희운 목사를 겨안으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진행팀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울었다. 땀과 눈물로 이룬 대장정이었다.

이에 앞서 삼보일배 52일째인 18일 '불교 100인 삼보일배의 날'에는 중앙승가대학교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 150여명과 조계사, 봉은사, 영원사, 수리사, 신복사, 신홍사 등 수도권 사찰에 다니는 불자 350여명이 참석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생명살림의 잔치'가 열렸다.

삼보일배 그 거룩한 장정

'새만금 갯벌과 온세상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아! 새만금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삼보일배'는 수경스님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들이 3월 28일 전북 부안 해장갯벌에서 출발하면서 시작했다.

변비의 근본 원인인 담(痰, 탐욕) 진(禪, 노여움) 지(癡, 어리석음) 삼독(三毒)을 참회하기 위해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는 4월 21일 홍성, 4월 25일 예산, 5월 3일 천안, 5월 7일 평택, 5월 11일 오산, 5월 16일 수원, 5월 21일 과천 등을 거쳐 23일 서울에 도착했다.

하루 8시간씩 매일 4-5km를 나아가는 삼보일배는 총 306km 중 최종 목적지까지 15km를 남겨 둔 상태다.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을 그대로 마시며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 오체투지를 하는 성직자들은 하루 약 2500배, 현재까지 어림잡아 130000배(쉬는 날 제외) 정도는 한 셈이다. 또 성직자들이 두걸음으로 손에 끼고 있는 먼장갑은 하루 평균 3번 이상 교체돼 57일 동안 1300개 정도가 사용됐다.

삼보일배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못 생명들에게 가했던 우리들의 죄를 참회하는 삼보일배'가 지속되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사회부장 미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김영진 농림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 이부영, 장영달, 김원웅 등 국회의원, 명계남, 장선우, 예지원 등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서울 입성을 앞두고는 일반인들의 동참이 늘어나 새만금 살리기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됨을 증명했다.

중단돼야 하는 이유

새만금 간척사업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다음달 초까지 신규상기화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생명평화연대측은 "신규상기화단 구성 전제는 방향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방조제 공사의 중단이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까지 총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아 농업용지 3만여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1억 2천만평)에 달하는 이 사업은 91년 김대중-노태우 청와대 영수회담시 추경예산에 200억원이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서 "1조 4천억원이 투입됐고 73%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며 내년이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방조제 공사 대비 진척도이며 감사원 추산 총사업비 대비 공사진척도는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자인했듯 '농업용지 확보'라는 원래 목적이 상실된 만큼 방향성과 타당성을 잃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입된 1조 4천억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중지할 경우 8조 1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4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공사를 중지할 경우 방조제 유실방지 공사비 2억7천6백만원 등이 필요하지만 갯벌유지에 따른 효과가 3조6천8백8십2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8조1천19억원의 이익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도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즉각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수경스님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들이 목숨을 건 고행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수자타의 우유죽'이 돼야 한다.

글=남동우 기자



◇삼보일배 순례단 이동경로와 일정(사진 맨위).
◇원불교 과천교당 어린이들의 응원(가운데).
◇18일 '불교 100인 삼보일배 날' 행사(아래)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을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